

# 라움플란에서 나타난 실내공간의 위계에 관한 연구

- 사성과 공성의 관계형성 방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ierarchy in Interior Space by Raumplan

-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Privacy & Publicity -

서동현\* / Seo, Dong-Hyun

이현희\*\* / Lee, Hyun-Hee

### Abstract

This spatial inclusion in actual housings are realized in the division of cellular space, formation of room through frontality, transition of room through material surface, and the dual-systemizing of circulation into function and formality. This simultaneously establishes the self-sufficiency of individual spaces and the interrelations between volumes, and leads to Raumplan, which is a form of architecture that gradually includes space within space. Though its dichotomous consideration of space. It economizes their use, which answers to the actual request of architecture in the modern era.

키워드 : 위계, 사성, 공성, 아돌프 로스, 라움플란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의 근본적인 기능인 '거주'는 인간이 집을 짓고, 그 집의 건설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와 사유 등 일련의 과정들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주거는 외부로부터 피신하기 위한 셸터(shelter)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외부의 요소들을 주거화(domesticate)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거공간은 '차이(difference)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성을 위해 많은 이론들이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대표적인 개념인 자유 평면(Plan Libre)과 라움플란(Raumplan)으로 크게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돌프 로스(Adolf Loos)의 라움플란은 매우 독특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개별 공간과 공간들 상호간에 위계(位階 hierarchy)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라움플란의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는 위계, 라움플란이 지향하고 있는 공간구성방식의 매커니즘을 파악해 위계 형성요소들을 사성(私性 privacy)과 공성(公性

publicity) 양자 간의 상관적인 힘의 관계에 비추어 봄으로써, 라움플란이 지향하고 있는 공간구성방식의 매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sup>1)2)</sup>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아돌프 로스의 전체 주택 작품들 중 라움플란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는 몰러 주택(Moller House)과 뮐러 주택(Müller House)으로 한정하여 라움플란 실내공간의 위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위계(位階 hierarchy)라는 용어는 위계질서라는 단어로 건축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계나 사회조직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낱말로써,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위계를 형성하는 요소, 즉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와 '차이'를 통해 위계질서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도면의 불분명한 부분들은 제작도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의 도면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시공현장에서 수정을 거듭하는 로스의 설계방식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 주택과는 어쩔 수 없는 다소간의 오차가

1)우신구, 근대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2, p.212

2)이 용어들은 각각 privacy와 publicity를 직역한 것으로서 참고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김광현/신승수/이병언/박지호/최교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1호, 2000.11, p.1

\* 정희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도면과 사진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은 주로 거실(홀)이 위치한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바닥면의 레벨 차이, 굴절된 동선 등의 위계형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2. 이론적 고찰

### 2.1. 실내공간과 위계

#### (1) 위계의 정의

우리말사전에서는 위계를 벼슬의 품계로 풀이하고 있다. 위(位)라는 말 자체에 신분, 지위, 등급, 순위 등과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위(位)란 “자리”를 뜻하는 말인데 그것은 좌립(坐立)의 장소,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계(階) 역시 벼슬의 등급, 품계를 가리키고 있다. 품계란 “옛 관리의 직품(職品)이나 관직”을 뜻한다고 사전에 서술되어 있다.

위계(hierarchy)는 특히 종교적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나 높은 어떤 것, 또는 가장 거룩한 어떤 것에 의해 부분들을 통일시켜 전체를 형성하는 질서개념이다. hierarchy는 hierarch에서 유래된 낱말로서 hierarch는 교주, 고승(high priest), (고대 그리스의)사원 헌납물계 등을 나타낸다. hierarch는 hier와 arch의 합성어로 이루어졌고 “높다”, “거룩하다”,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3)</sup>

#### (2) 실내공간에서의 위계

위계는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지위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공간에서 주로 그러한 신분·계급 혹은 성별 등에 의해 영역을 구분할 목적으로 구현되어왔다. 이렇게 위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표 1>에서와 같은 물리적·심리적 경계요소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sup>4)</sup>

<표 1> 주요 경계요소의 유형

	요소	유형
물리적경계요소	벽	- 공간을 한정하고 위요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 시선의 유도과 차단에 많이 사용됨
	창호	- 내부공간의 상호유입을 조절하여 공간의 흐름 결정
	천장	- 공간을 상부에서 한정하는 수평요소 - 시각적으로는 벽보다 약하지만 관찰자에게 안정감 부여
	바닥	- 물리적인 공간의 지지체 - 시각적으로 안정감 부여하는 토대
심리적경계요소	빛/그림자	- 빛의 방향과 그림자의 방향에 따른 심리적 위계 생성 - 거울의 사용을 통한 심리적 효과
	동선	- 동선의 굴절을 통한 공간규모 인식의 변화 - 시선의 변화와 함께 사용되어 접근의 난이도 통제
	시선	- 높이에 의한 수직적 시선차이를 통한 위계 생성 - 시선의 변화를 통해 인접공간 및 외부와의 관계 변화
	색상/재료	- 색상의 강조를 통한 공간의 이질감 증대 - 재료의 변화를 통한 개별 공간의 정체성 추구

3)전경배/한규영, 종교건축공간의 보편적 위계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9호 통권47호, 1992.9, p.33

4)박현혜, 주택 내부의 움직임과 시각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12, p.23

이러한 경계요소들은 개별 공간에서, 혹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사용되어 공간 상호간의 관계가 달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렇게 달라진 관계들에 의해 위계가 생성된다.

### 2.2. 사성과 공성

주거공간은 그 특성상 다른 공간과는 달리 각 개별 공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공간의 패턴, 공간이 모이고 연결되는가, 행위들이 어떻게 집합되고 분산되는가, 또한 공간들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는가의 내용들이 주택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주거공간의 본래 목적인 ‘주거화를 위한 차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관계형성의 가장 강력한 계기는 사성과 공성의 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성과 공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성과 공성은 상황이나 맥락(context)에 따라 변화되는 것<sup>5)</sup>으로서, 공간 내에서의 경계요소들을 조절하는 과정이나 거주자의 자기정체성 확보 여부에 따라 <표 2>에서와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표 2> 상황과 맥락에 따른 사성과 공성의 변화

변화내용	상황과 맥락
사성의 증대 (공성의 감소)	-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확보 - 주거화된 영역(domesticated area) - 사적 은신처(private retreat)의 역할 - 주체화 및 자기정체성 증대 - 순치(馴致) 혹은 내부화
사성의 감소 (공성의 증대)	- 교류성(사회성 sociability) 증대 - 외부 시선への 노출 - 접근의 용이함

이렇게 사성과 공성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과정은 주거공간의 고유한 영역인 ‘삶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위계의 형성이 의도하는 바와 사성과 공성의 조절이 목적하는 바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사성과 공성의 관계형성이 실내공간에서의 위계형성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3. 리움플란의 작품분석

### 3.1. 리움플란의 작품분석

사성과 공성의 관계형성 방식과 실내공간의 위계와의 상관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공간

5)베아트릭스 플로미니,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문화과학사, 2000.1,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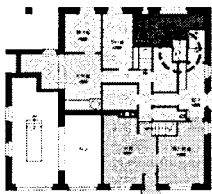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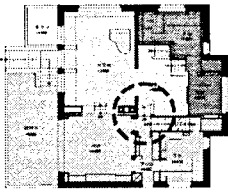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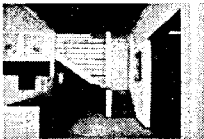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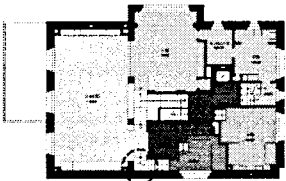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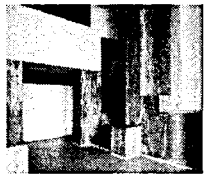
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패턴, 공간의 연결 등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표 3>으로부터 <표 6>에 이르는 내용들은 위계형성요소로 구분한 물리주택과 물리주택의 실내공간이다. 여기서 평면도에 나타난 색의 구분은 바닥레벨의 높이차를 3가지 농도로 구분한 것으로, 색이 진할수록 높은 레벨에 위치함을 의미하며, 주택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낮은 공간과 가장 높은 공간의 높이차는 심한 경우 1m를 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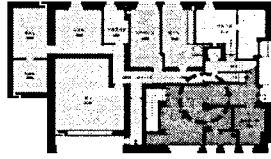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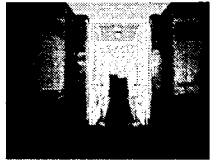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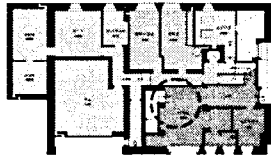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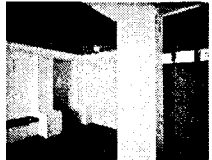
<표 3>에서 보이는 것은 주로 라움플란의 계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법으로, 계단을 굴절시켜 동선과 시선이 한 번에 다음 공간에 닿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이것은 이동하는 사람이 전체 공간의 위치와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한 편, 동시에 빠르고 손쉬운 진입을 막아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 4>는 각각 재료와 색채의 변화를 통한 영역구분으로 위계가 형성되는 곳으로, 바닥레벨이나 천정의 높이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공간의 전이를 인지할 수 있게끔 색채의 강한 대비와 재료의 뚜렷한 구분을 활용한 사례이다. 로스는 특히 각 개실을 설계의 단위로 보고 각 개실별로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동선의 굴절을 통한 위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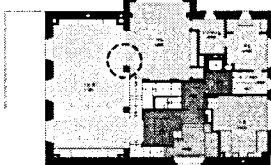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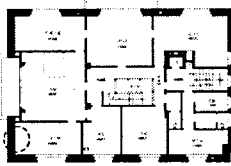

	평면상의 위치	사진
Müller House 1st Floor		 Staircase
Müller House 2nd Floor		 Staircase
Müller House 2nd Floor		 Staircase

<표 4> 재료와 색채를 통한 위계의 형성

	평면상의 위치	사진
Müller House 1st Floor		 Entrance Hall
		 Waiting room

<표 5>는 라움플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위계형성방식으로, 바닥의 높이차를 이용한 것이다. 적게는 40cm에서부터 많게는 1m에 이르는 높이차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홀)과 식당, 그리고 독립적을 만들어진 내실공간에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식당과 내실은 거실에서 접근하게 되어 있지만, 각각은 다른 레벨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식당과 거실은 <표 6>에서와 같이 개구부를 통해 시각적 연속선상에 공간을 두는 방법도 혼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실은 거실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식당과는 독립되어 있어 세 공간이 각각의 사성과 공성에서 차이를 지니며 명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시선을 활용한 위계의 형성

	평면상의 위치	사진
Müller House 2nd Floor		
Müller House 3rd Floor		

또한, <표 6>의 드레스룸에서와 같이 거울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시선의 확장을 피하거나 창문의 위치를 등지도록 하여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심리적인 위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 4. 라움플란에서 나타난 실내공간의 위계

위계의 형성을 위해 라움플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경계요소에는 동선의 굴절, 재료와 색채를 이용한 강조, 바닥높이의 차이, 시선의 확장 등을 활용한 것 등이 있었다.

<표 7> 위계 형성을 위해 사용된 경계요소

경계요소의 내용	효과
동선의 굴절	- 공간의 규모와 위치 가능하기 어려움 - 손쉬운 진입의 차단
재료의 강조	- 공간의 진이 인식 극대화
색채의 변화	- 개별 공간별 정체성 구축
바닥의 높이 차	- 복합적 위계 형성 - 시선의 변화 생성
시선의 확장	- 공간규모 가능하기 어려움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라움플란이 다양한 물리적·심리적 경계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내공간에서의 위계형성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라움플란이 다른 설계방법들과 확연한 차이점, 즉 전체를 하나의 층으로 놓고 공간을 구획하는 방법 대신 개별 공간들 혹은 그룹 지어진 공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 단위로 하여 그것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로스가 주장했던 ‘안으로부터의 설계’와도 일치하며, 각각의 개별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개별 공간의 마감 재료를 다르게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은 라움플란의 ‘raum’이 영어로 ‘Room’을 의미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라움플란의 경계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위계를 살펴본 결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다른 설계방법에서 사용하는 개별적인 경계요소(벽, 개구부, 바닥, 천장 등)들보다는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작용하는 경계요소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2. 라움플란의 공간들은 평면상의 구획을 통해 구성되어질 수 없는 복잡한 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로스의 설계방식인 라움플란이 특유의 체계를 지녔음을 암시한다.

3. 개별 실들을 연결하거나 특정 실들을 그룹지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루어보아 라움플란은 개별 공간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전체로 확장시켜나가는 소조(塑造)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아돌프 로스는 한 사람의 건축가가 모든 기물과 주거를 디자인하는 종합예술작품인 아르누보와 예술과 기술을 통합하려 했던 독일공작연맹의 노력 둘 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주거공간이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사회적·기능적 요소와 개별적·미학적 요소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 필요함을 느끼고 그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스는 거주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집기들은 거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것은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과 행위패턴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로스의 라움플란이 가장 잘 나타났다고 평가되는 물리주택과 물리주택을 살펴봄으로써, 로스가 사성과 공성으로 대표되는 주거공간의 필수적인 두 속성을 균형적으로 공간 내에서 담아내기 위해 개별 공간과 다른 공간 사이에서 경계요소들을 통한 섬세한 위계로써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강우영, 아돌프 로스의 라움플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 김광현/신승수/이병연/박지호/최교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1호, 2000.11
3. 김주애, 아돌프 로스 건축의 ‘공간적 내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 박현해, 주택 내부공간의 움직임과 시각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 베아트릭스 콜로미냐, 프라이버시와 공공성 : 대중매체로서의 근대건축, 문화과학사, 2000
6. 이세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움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 우신구, 근대주거의 내부-외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8. 전경배/한규영, 종교건축공간의 보편적 위계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8권 9호 통권47호, 1992.9
9. 정용욱, 물리주택과 비트겐슈타인 주택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0. Aldo Rossi, Adolf Loos, RIZZOLI, 1982
11. Max Risselada, Raumplan Versus Plan Libre, Delft University Press, 1988